

http://dx.doi.org/10.17703/JCCT.2020.6.1.223

JCCT 2020-2-28

남자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의 경험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f Men in Nursing as a Student

김미화*, 송미숙**

Mi- Hwa Kim*, Mi-Sook Song**

요약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남자 간호대학생의 임상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임상 실습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고 남자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이 진로설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현재 H대학교 간호학과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임상 실습 경험이 있는 3학년 3명과 4학년 남학생 3명을 눈덩이 표집으로 선정하였으며,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의미 있는 진술을 분석하여 남자 간호학생들의 임상 실습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3개의 범주로 구분되며, 6개의 주제, 14개의 의미 있는 진술로 도출되었다. 이는 '병동실습에서 경험한 부정적인 간호이미지', '감당해야 할 스스로의 짐', '특수파트 실습경험에서 찾은 간호의 매력'으로 남자 간호학생들은 남자 간호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으며, 그로 인해 직업에 대한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간호사의 전문성을 확인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남자 간호학생들의 임상 실습 경험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남자 간호대학생의 학과 적응과 임상 실습 적응에 대한 상담과 지도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남자 간호대학생의 졸업 후 진로결정 상담에서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남자 간호대학생, 임상실습, 남학생 실습 경험, 임상 진로결정, 질적연구

Abstract The study was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nature of clinical practice by examining the clinical experience of 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and to obtain basic data on how male nurses influence the career setting in clinical practice. to b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male students who are currently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H University, and three snowmen were selected as 3rd grade students and 3rd grade male students who had clinical practice, and analyzed meaningful statements according to Colaizzi data analysi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students' clinical experience. The findings we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with six themes and 14 meaningful statements. The male nursing students experienced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negative nursing image experienced in ward practice', 'the burden of self to be handled', and 'the charm of nursing found in the special part training experience'. Conflict and confusion over the profession were causing. However, among them, the professionalism of the nurses was confirmed and the pleasure of learning was found,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a holistic view of th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f male nursing students. In addition, it can be used as a basic data useful for counseling and guidance on academic adaptation and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of 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is expected to be useful for counseling career decision after graduation of male nursing students.

Key words : Male nursing student, Clinical practice, Male student experience, Clinical career decision, Qualitative research

*정희원, 경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제 1저자)

**정희원, 경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교신저자)

접수일: 2020년 01월 10일, 수정완료일: 2020년 02월 14일

게재확정일: 2020년 02월 26일

Received: Jan 10, 2020 / Revised: Feb 10, 2020

Accepted: Feb 14, 2020

*Corresponding Author: kmh9781@hanmail.net

39913 Kyongbuk Science College, Dept. of Nuring, 634, Jisan-ro, Gisan-myeon, Chigok-gun, Gyeongbuk, Korea

1. 서 론

최근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취업난의 증가로 인해, 취업률(91.9%)을 기록하는 간호학과는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회 전체에 걸쳐 직업에 대한 성 고정관념의 탄력성과 전문성의 확대와 직업의 안정성으로 인한 남학생의 간호학 전공의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1]. 2016년 누적 남자 간호사 수는 1만 542명이며, 남자간호사 면허 취득률도 9.9%로 나타나, 간호업계에 남자간호사 비율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2]. 남자간호대학생의 급증 현상은 여성이 주로 이루었던 간호사의 이미지에도 향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간호의 수준 향상과 간호 전문직의 권력획득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여성과 남성의 고정된 성 역할 체계와 고정관념이 남아 있어, 남성이 간호학을 전공함으로써 인한 성 역할 갈등과 여성 주류의 직업 환경에서 부적응 등으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남자 간호사의 일반병동 적응 경험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남자로서의 기질적 특성으로 인해 업무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병동 내에서 간호 업무 외의 잡일을 많이 하는 등 남자 간호사로서의 한계적 간호업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적응하기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다[3]. 또한 많은 남자 간호사들이 병원 환경의 부조리와 편견에 시달려 이직하는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병원 간호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남자간호사 이직률(27.1%)이 전체 간호사 이직률(12.6%)의 두 배에 다다른다고 한다[4].

대학교의 간호학 교육은 크게 이론교육과 임상 실습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병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임상 실습교육은 간호 학생의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비판적 사고와 임상적 추론을 통하여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준다. 간호지식의 근거한 실습은 본질적인 간호업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는다[5]. 그러므로 남자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때 적합한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간호직의 특성상 여성의 직업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있다. 그러나 점차 늘어나는 남자 간호대학생들은 실습 과정 중 현실적인 어려움을 경험한다[6]. 또한 여러 가지 간호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전문직에서 요구에 필요한

적응을 할 수 있는 태도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는 임상 실습을 통해 간호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5][6], 이론적인 지식과 간호 술기를 실제 임상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간호학생들의 직업 적응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간호학생들에게 임상 실습의 긍정적인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간호학은 일반 인문 계열과는 달리 임상 실습교육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간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간호사로서 태도를 갖추도록 하므로 졸업 후 간호사 업무의 진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7]. 또한 임상 실습의 경험은 학생들이 간호사가 되어 신입 간호사로 적응을 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향후 간호사의 이직 의도와도 무관하지 않음이 보고되고 있다[8].

임상 실습교육을 받는 간호 대학생들의 부정적인 경험은 익숙하지 않은 병원 환경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며[9], 수업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임상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을 경험하고 느끼기도 한다[10].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실습 스트레스가 적응수준 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고[11], 실습에 대한 태도와 만족도가 낮은 학생은 실습에 대한 스트레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2]. 남자 간호대학생의 경우, 임상 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간호학 특성으로 인한 성 역할 갈등과 여성 주류의 직업 환경에 처음으로 직면하게 되면서 여자 간호대학생에 비해 그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남자 간호대학생들의 간호학에 대한 학과 적응과 남자간호사로서의 직업에 대한 적응력을 돕고 임상 실습에 낮은 스트레스와 적절한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취업을 앞두고 있는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남자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경험의 근본적인 의미를 탐구함으로써 남자 간호대학생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경험의 의미가 남자 간호대학생의 실습교육과 간호학과 적응과 직업적응을 위한 실습의 장애를 이해하며 개선책을 모색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경험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Colaizzi[13]의 현상학 연구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참여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 참여자는 현재 H 대학교 재학 중인 3학년 3명과 4학년 남학생 3명을 눈덩이 표집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면담을 통해 설명을 해 주었으며, 면담을 통해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기준에 부합한지를 확인 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 면담은 참여자가 실습을 하면서 느낀 것들을 자유분방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원하는 장소에서 진행하였고, 평균 면담 시간은 최저 30분에서 최고 1시간 30분가량 소요되었으며, 평균 소요시간은 40분 정도였다. 자료 수집은 추가적으로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는 포화상태에 도달 할 때까지 참여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연스러운 면담의 흐름이 끊어질 것을 예상하여 면담 질문지를 따로 준비하였으며, 면담이 자연스럽게 계속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행동, 표정, 말의 어조 등의 비언어적인 것도 메모해 자료 분석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을 하면서 기록되어진 메모도 추가로 기록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현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진술하기 위해 Colaizzi[13]가 제시한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수행하였다. 먼저 첫 단계에서는 인터뷰 내용을 필사하고 반복하여 읽으면서 질문내용과 나타난 주제에 따라, 전체 자료에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였다. 둘째 단계에서는 추출된 의미 있는 진술들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관련성이 없는 표현과 요인들을 제거하면서 비슷한 속성으로 묶는 범주화 작업을 시행하였다. 셋째 단계로 의미 있는 진술에서 공통적인 주제군과 그 주제군에서 비슷한 속성끼리 모아 주제 묶음을 도출하였다. 또한 참여

자의 경험에서 도출된 의미를 주제, 주제묶음으로 범주화 한 후 원 자료와의 일치, 모순여부를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거쳤다. 넷째 단계는 분석된 자료를 본질적인 주제에 따라 총체적으로 기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진술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의 내용과 결과를 요약한 내용을 연구 대상자 1인에게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4 연구의 질 확보

본 연구에서 Lincoln과 Guba[14]의 연구의 엄정성 평가 기준에 따라, 연구의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네 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연구의 질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사실적 가치(truth value)를 확보하기 위해서 임상 실습에서의 경험에 대한 표현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학생으로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강의실의 분위기를 마련해서 자연스러운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필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된 주제의 의미를 참여자 1인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적용성(applicability)은 자료 수집에 있어서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심층적으로 수집하고 포화시키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다른 남자 간호대학생에게 제시하였을 때 수긍하고 공감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일관성(consistency)을 높이기 위해 연구계획에서 면담, 분석에 이르기까지 연구자는 질적 연구에 경험이 많은 교수님 1인과 주 1회 이상의 논의를 하였고, 가장 적합한 주제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과정과 의견을 수시로 교환하였다. 중립성(neutrality)을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을 배제하려고 노력하면서 반복되는 질문을 지양하여 '판단중지'를 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편견을 배제하고, 연구자의 가정과 선 이해를 미리 밝혀 두고 이를 연구의 전 과정을 통해 인식하고 이로부터 중립적인 입장을 갖도록 노력하였다.

5.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자는 박사과정 대학원에서 질적 연구 교

과목을 수강하였으며, 질적 연구방법에 학회를 참석하여 질적 내용분석과 학문에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으며, 간호학생의 다양한 실습지와 다수의 임상실습 지도를 한 경험이 있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규명하고자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Colaizzi[13]의 자료 분석 방법에 따라 의미 있는 진술을 분석하면서 유사한 것끼리 묶었으며, 내용의 밀도에 따라 포괄적인 주제를 추상적이며 통합적인 의미로 형성하며 최종적으로 3개의 본질적 주제를 도출하였다. 즉, 3개의 범주로 구분되며, 6개의 주제, 14개의 의미 있는 진술로 도출되었다. 이는 ‘병동실습에서 경험한 부정적인 간호이미지’, ‘감당해야 할 스스로의 삶’, ‘특수 파트 실습경험에서 찾은 간호의 매력’이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범주 1: 병동실습에서 경험한 부정적인 간호 이미지

1) 주제 1: 압박감을 느끼는 분위기

“끼리끼리 장난 아니에요. 한 사람 없으면 욕하고 학생인 제가 봐도 무시하는 상황, 서로 쥐어뜯는 모습을 봤어요. 심한 경우에는 막말을 해대면서 인격 모독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런 곳에 와서 일 할 수 있을까? 난 남자라서 더 위축되고 못 할 것 같았어요.”(대상자 4)

“저는요~~진짜 단순하거든요... 상대를 깊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간호 쪽은 서로 나누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그 중간에 끼면 나도 어느 쪽도 편을 들 수 없을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상황도 직접 봤고, 어떻게 해결을 못할 것 같아요.”(대상자 2)

“이 병동의 분위기가 수간호사에 의해 좌우되는 모습이 많았어요. 수간호사나 윗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면 아랫 연차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위에서

압박 받는 만큼 밑의 연차는 그 압박의 전달되는 때 일이 그런 날들의 일상인 것 같더라고요.”(대상자 3)

1) 주제 2: 현실과 이상의 차이

“병동 중에서 일반병동은 그닥 배울 것도 없고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깨졌어요. 정말 이곳은 아닌 것 같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대상자 1)

“사명감을 가진 신성한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경험해 보니 현실은 그냥 똑같은 직업이구나 싶더라고요?”(대상자 5)

“업무 영역이 다른 것뿐인데, 무시하는 모습이 싫었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의사에 대한 반감도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서로 함부로 말하고, 이게 아닌데 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대상자 6)

범주 2: 감당해야 할 스스로의 삶

1) 주제 1: 성 정체성을 경험함

“남학생이라서 실습의 제한이 많았습니다. 특히 산과 부인과 실습 때는 남자라는 이유로 실습 할 수 없는 경험도 했습니다.”(대상자 3)

“간호사가 되기 위한 예비 준비를 하는 학생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남성의 역할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힘든 것을 옮길 때 남학생을 찾아요, 완전 불공평하죠!”(대상자 2)

1) 주제 2: 다시 한 번 생각하기

“안정적인 직업을 생각하면서 간호학과를 진학했는데, 실습을 하면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전문적이지만 정말 많이 힘들고 그리고 열심히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부담이 많이 커요.”(대상자 1)

“남자간호사들이 임상에서 오래 버틴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직업특성상 여러 가지를 해야 하니...

전 그렇게 못하는데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싶어요.”
(대상자 4)

범주 3: 특수 파트 실습경험에서 찾은 간호의 매력

1) 주제 1: 간호의 전문성을 확인하기

“응급실 간호사는 인공호흡을 하면서 수술실로 가는 걸 봤는데. 피범벅이 되면서도 당황하지 않고 능숙하게 환자를 돌보는 모습이 정말 간호사가 전문직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대상자 3)

“심장이식 전문 간호사가 5-6장 종이를 건네주며 꼼꼼하게 조목조목 짚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확신에 찬 눈빛과 말투가 신뢰감을 주면서 나도 저런 간호사가 되어야지 싶었어요.”(대상자 2)

1) 주제 2: 배움의 즐거움

“실습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요. 아는 것이 나오면 생각하고 실제로 보고 직접 경험하니 실습하면서 매일 새로워요.”(대상자 5)

“특수파트에서 경험한 실습내용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보고 확인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대상자 6)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고자 간호학과 3학년 3명과 4학년 3명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3개의 범주와 6개의 주제 모음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 남자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의 경험에 대한 의미는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들의 부정적인 모습과 간호사들 사이에서 성 정체성을 경험하면서 간호 직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지만, 그래도 특수 파트에서 간호전문직의 매력을 느끼고

그 속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었다.

첫째, “병동 실습에서 경험한 부정적인 간호 이미지”는 ‘압박감을 느끼는 분위기’, ‘현실과 이상의 차이’라는 주제로 구성되었다. 이는 인간관계적인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병동실습에서 남자 간호학생들은 간호조직의 압박감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로 다른 업무의 영역을 인정과 존중을 하지 못하고 간호에 대한 이상적인 이미지가 현실에서 하나의 직업으로 바라보게 되는 상황에서 실망감과 괴리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임상실습 시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경험에 관해 탐구한[15] 연구에서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을 하면서 간호업무의 힘든 상황을 직시하고 일 자체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만끽 하게 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둘째, “감당해야 할 스스로의 삶”으로 ‘성 정체성을 경험함’, ‘다시 한번 생각기’로 주제가 구성되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으로서 참여한 임상현장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임상 실습에서 제외되고, 남성의 역할을 기대하는 병동 분위기를 겪으면서 졸업 후 남자간호사로서 여성 주류의 간호조직 환경에 잘 적응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급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남자간호사의 일반병동에서의 임상실무 적응 경험의 본질을 탐구한[16] 연구에서 여성 중심의 병동 분위기에 어울리기가 어려웠으며, 노력을 해도 여자 간호사들 사이에 완전히 융화되지 못해서 힘들었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나타냈다.

셋째, “특수 파트 실습경험에서 찾은 간호의 매력”은 ‘간호의 전문성 확인하기’와 ‘배움의 즐거움’으로 주제가 구성되었다. 이는 부서의 특수성상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역할이 다양한데에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임상실습 전후 간호사에 긍정적으로 심어주는 연구[12][17]와 유사함을 나타냈다. 또한 힘든 임상 실습상황에서도 간호사로서 전문성을 확인하면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간호사의 매력을 찾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을 탐구함으로써 남자 간호대학생의 실습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시도되었다. 남자 간호대학생들은 남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으며, 그로 인해 직업에 대한 갈등과 혼란이 일으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간호사의 전문성을 확인하고 배움의 즐거

움을 찾아가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남자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실습경험에 대한 상담과 지도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남자 간호대학생의 졸업 후 진로 결정 상담에서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 1. Clinical experience of male nursing student

category	theme	sub-theme
Experience in ward practice Negative nursing image	A feeling of pressure	A workplace to hold
		Opposition
		Distance from cooperation.
	Difference between reality and reality	Bias
		Pneumoconiosis
		Negative Warding Experience
Have to bear oneself to bear	Experience Sexual Identity	Frustration
		Improper treatment
		Non-terminating station
	Think again	Unacceptable organizational culture
Attractiveness of nursing found in experience of special part practice	Identifying nursing expertise	Longing for a nurse
		A progressive tendency
	Pleasure of learning	Anticipation for the future
		The special part longing

References

- [1] Ann, E. S., & Chu, S. K. (2011). A study on the sex stereotypes and job satisfaction of male nurses. *Nursing Administration Society*, 17(1), 14–21.
- [2] Korea Nursing association (2016). Status of nursing staff discharge in Korea. http://webzine.koreanurse.or.kr/Webzine2014/search_read.php?webzine_id=1003&page=1&keyfield
- [3] Jeon, H. O., & Kim J. H. (2016). The Influence of Perfectionism and Ego-resiliency on Anxiety by Leisure Activ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7), 134–143.
- [4] Kim, H. S. & Lee J. S. (2017), Turnover Experience of Mal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7(1), 25–38.
- [5] Jang, S. M. & Kim, J. E. (2018). Current Status of Transcultural Nursing Education in Nursing Baccalaureate Program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4(2), 181–189.
- [6] Kim, S. H. (2013).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 for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and its effec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4), 580–593.
- [7] Lambert. (2005). Clinical education facilitators: a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Clinical Nursing*.
- [8] Lee, H. Y., Lim, H. S., & Kim, M. Y. (2011). The Clinical Practice of Newly Graduated Nurses who are Resigned Purpose: This study was to enhance the quality of nursing students, *Qualitative Research*, 12(1)
- [9] Han, J. Y. Park H. S. (2011). Effects of Teaching Effectiveness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Purpos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8(3), 365–372.
- [10] Kim, S. R., & Lee., J. E. (2005).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1) 98–106.
- [11] Nam, Y. Y. & Sun, Y. M. (2011).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2), 216–225.
- [12] Hong, S. S & Hong, J. A. (2013) Spirituality and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ntents*. 13(6) 361–369.
- [13] Colaizzi, F. U.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cal views it, In R. S. Valle and M. King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14]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15] Park, M, J. (2017). Nursing student stress experience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8), 211–229.
- [16] Hwang, H, M (2017). Relationship among Empathic ability, Communication skill,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Health Commun*. 12(1), 1–10.
- [17] Kim, Jung ae. (2017). Nursing Student's Thinking about Employment.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4)3 83–92.